

#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공공도서관 사서인식 조사연구

##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about the Response to the COVID-19

노영희 (Younghee Noh)\*

장로사 (Rosa Chang)\*\*

### 초 록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도서관계의 서비스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사서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신종 감염병이 확산 및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공공도서관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유행성 질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심의 도서관 대책 마련, 둘째,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공도서관 비대면 및 온라인 서비스 강화, 셋째, 직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철저한 방역 및 선제적 대응, 넷째, 정보불평등 계층의 디지털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With the COVID-19 pandemic being prolonged, the society is being converted into an untact society, thereby affecting the service methodology of domestic and foreign library systems. This study thus surveyed the librarians' awareness of COVID-19 response measures of public libraries, and proposed public libraries' response measures in situations where the novel infectious disease is spreading and prolonging. Specifically, the proposed measures include, first, preparing national-centered library countermeasures to jointly respond to the epidemic disease, second, strengthening various untact and online services of various public libraries through government-level budget support, third, a thorough prevention of epidemics and preemptive response from the viewpoint of employees and users, and fourth, the expansion of library services aimed at resolving the digital cultural divide among classes of people, including information unfairness.

키워드: 코로나19, 유행성 질병, 대응조치, 공공도서관, 사서인식

COVID-19, epidemic disease, response, public library, librarians' perception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승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rschang120@sewc.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0년 8월 23일 ■ 초심사일자: 2020년 9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20년 9월 21일

■ 정보관리학회지, 37(3), 203-220, 2020.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203>

\* Copyright © 2020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인류 역사를 돌아해보면 전염병의 창궐은 반복되어왔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유행성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현 사회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 및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병원체의 접촉 위험 등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이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바야흐로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plague time)'라고 천명하였으며, 이제 인류는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코로나19 범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도서관계의 서비스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에 도서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단기간의 대책을 세우고 비대면 및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폐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코로나19 가속화로 많은 도서관들이 정상적 운영은 아니더라도 단계적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도서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상이해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행성 질병에 공동으로 대

응하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일원화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일반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게다가 공공도서관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보불평등 계층(the information poor)의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

이에 공공영역인 공공도서관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중 및 정보불평등 계층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및 불안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사서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종 감염병이 확산 및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공공도서관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도서관 실무차원에서 유행성 질병에 대응하는 공공도서관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공도서관이 신종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제 없는 바이러스와의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선행연구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뒤흔들고 있다(권순만, 2020).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가 한국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코로나19가 범지구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국내외 도서관계에서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도서관 관련 협회는 도서관 휴관을 권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학계에서도 문헌정보학계를 포함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수행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국내외적으로 수행된 코로나19의 현황 및 대응 등과 관련된 타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와 문헌정보학계에서 수행된 전염병과 관련된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2.1 타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코로나19의 현황 및 대응 등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관련 해외연구로서 Guarner(2020)는 전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3개의 바이러스(사스, 메르스, 코로나19)가 새롭게 출현함에 따라 인류는 계속적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Wilder-Smith & Freedman(2020)도 사스 바이러스(SARS)에 이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인류는 또다시 전염병과의 싸움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했으며, 공중보건 조치(public health measures)를 통해 유행성 질병이 사람들 간에 전염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연구로서 권순만(2020)은 코로나

19가 전 지구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감염병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물론 코로나19는 신종바이러스여서 현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감염병에 대응하는 정책이 바로 이번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로서 김남순(2020)은 현재 우리 사회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이 4-5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우리는 신종 감염병과의 싸움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했으며, 앞으로 장기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채수미(2020)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은 어려운 사안이며, 앞으로 발생할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 당국과 함께 경제·외교·교육·환경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및 융·복합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웅규(2020)는 코로나19가 신체의 병에서 사회의 병으로 변이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기존의 정형적이고 계량적인 매뉴얼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非 매뉴얼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2.2 문헌정보학계에서 수행된 전염병과 관련된 연구

Featherstone, Lyon, Ruffin(2008)은 전염

병, 테러, 지진, 화재, 홍수 등과 같은 재난 대응에 대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기관 지지자(institutional supporters), 수집 관리자(collection managers), 정보 보급자(information disseminators), 내부 계획자(internal planners), 커뮤니티 지지자(community supporters), 정부 파트너(government partners)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재난 계획, 대응 및 복구에 기여할 수 있는 사서들의 역할이 크게 간과되어왔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Featherstone, Boldt, Torabi, Konrad(2012)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고 배포하는 건강정보전문사서(health sciences librarian)의 기술(skill)은 헬스케어 관리자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이 절정에 이르는 기간에 신뢰할만한 정보원에 대한 알람 서비스(alerting services)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Malizia, Hamilton, Littrell, Vargas, Olney(2012)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재난 시에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사서들은 재난 시에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신속하게 평가해야 하며, 서비스를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수행된 유행성 질병 관련 최초 연구로서 김완중(2015)은 메르스(MERS)가 유행하던 기간 전후인 2014년과 2015년의 대출책수를 비교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유행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

과, 메르스가 유행하던 2015년에는 64,645.05권으로서 2014년보다 하루 평균 6,300권 정도 대출책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메르스와 같은 유행성 질병은 공공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에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은 안전한 장소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Ahmed, Bath, Sbaffi, Demartini(2019)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전염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트위터(Twitter) 214,784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8개(감정과 느낌, 건강 관련 정보, 일반 논평 및 자원, 미디어 및 건강기관, 정치, 기원국(country of origin), 음식, 유머(풍자)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사서들은 이러한 트위터 데이터를 건강 관련 토픽에 대한 대중의 견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례 없는 도서관 폐관이라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Wang & Lund(2020)는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게시된 미국 공공도서관 공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시기적절한 정보를 종합하고, 공공도서관이 팬데믹(pandemic) 기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의 9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폐관했으며, 도서관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및 일반 위생 수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인 도서관은 폐관하였을지라도 도서관 웹사이트 및 SNS를 통해 최신의 신뢰할만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만연하는 가운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유행성 질병 관련 정보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중요한 소스가 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강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민(農村民)과 같은 정보불평등 계층에게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염병에 대한 정보는 정보격차를 줄이고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짐에 따라 근래 김성원(2020)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 방안 및 방안 수립시의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지역사회와 도서관의 안전확보, 단계별 대응, 도서관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이용자 요구 반영 및 소통 강화를 들었다. 방안으로는 방역 및 소독업무, 대출 및 열람 등 이용자서비스, 전자자원의 활용과 외부 가능자원의 탐색, 인력활용방안, 홍보강화를 제안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개관한 결과에 따르면, 국외의 경우에는 전염병, 테러, 지진, 화재, 홍수 등과 같은 재난 대응에 대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과거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인류를 위협했던 유행성 질병인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사태는 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의 싹이 트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3. 연구설계

#### 3.1 조사대상 및 기간

공공도서관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사서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 150명에게 전화를 돌려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104명이 응답함으로써 설문 회수율은 69.3%로 집계되었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 상에서 결측값이 있으면 설문완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결측값과 같은 유효하지 않은 설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표본의 선정은 우리나라 총 17개 행정구역으로서 1개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8개 도(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1개 특별자치시(세종), 1개 특별자치도(제주)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인 국내 공공도서관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사서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이 확산 및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보다 실효성이 있는 공공도서관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3.2 설문내용 및 문항구성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은 국제도서관협회 연맹(IFLA)의 국가도서관분과(CDNL)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전 세계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현황을 조사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문항은 총 73개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영역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설문으로 총 3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에 관한 설문으로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에 대한 설문으로 총 58개의 문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네 번째 영역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주요 우려사항에 관한 설문으로 총 9개의 문항이 수록되어 있다(〈표 1〉 참조).

## 4. 분석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1명(10.5%)이고 여성이 93명(89.4%)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여주었다.

둘째,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7명(35.5%)과 33명(31.7%)으로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40대가 25명(24.3%), 50대가 8명(7.6%), 60대 이상이 1명(0.9%)의 순으로 설문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서관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51명

〈표 1〉 설문내용 및 문항구성

조사영역	문항구성	문항 수
개인적 특성	• 성별	3
	• 연령	
	• 도서관 경력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	• 유행성 질병이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3
	• 유행성 질병에 공동 대응하는 국가 중심의 도서관 대책 마련의 필요성	
	• IFLA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에 관한 설문 인식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대응	• 공공도서관 휴관/개관 여부	1
	• 직원 및 이용자 대상의 공공도서관 휴관 형태	2
	• 직원 및 이용자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22
	• 디지털/온라인서비스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10
	•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6
	• 대응조치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	2
	• 코로나19가 공공도서관 제정에 미치는 영향	2
	• 직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공도서관 대체활동 및 서비스개발 여부	13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주요 우려사항	• 직원들의 건강, 직원의 고용, 예산 삭감, 도서관 활성화 전략, 불확실성 (예: 바이러스의 지속여부) 등	9
계		73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N	%
성별	남성	11	10.5
	여성	93	89.4
연령	20대	37	35.5
	30대	33	31.7
	40대	25	24.0
	50대	8	7.6
	60대 이상	1	0.9
도서관 경력	5년 미만	51	49.0
	5년 이상-10년 미만	21	20.1
	10년 이상-15년 미만	12	11.5
	15년 이상-20년 미만	11	10.5
	20년 이상	9	8.6

(49.0%)으로 가장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이 21명(20.1%),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2명(11.5%),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1명(10.5%), 20년 이상이 9명(8.6%)의 순으로 설문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4.2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질병이 앞으로 도서관서비스의 방법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0.0%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무려 57.6%에 이르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질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심의 도서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0.0%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IFLA의 국립도서관분과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에 관한 설문 인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에 관한 일반적 인식으로서 유행성 질병에 공동 대응하는 국가 중심의 도서관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유행성 질병이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5점 척도로 평균이 각각 4.55와 4.5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IFLA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에 관한 설문 인식은 평균이 1.68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질병이 앞으로 도서관서비스의 방법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향후 유행성 질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

심의 도서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IFLA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 것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질병에 대한 도서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표 3〉 참조).

### 4.3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대응

#### 4.3.1 공공도서관 휴관/개관 여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휴관/개관 여부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총 104명의 사서 가운데 90명이 휴관했음에 응답함으로써 공공도서관 휴관 비율이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휴관 기간을 살펴보면, 8주 이상-12주 미만 휴관이 50.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12주 이상 휴관이 28.8%, 4주 미만 휴관이 0.9%, 4주 이상-8주 미만 휴관이 5.7%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개관했음이라고 응답한 13.4%의 경우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인 5월 말부터 6월 초를 기준으로 개관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로서 심각 단계로 처음 격상되었던 2월에는 휴관한 적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표 4〉 참조).

#### 4.3.2 직원 대상의 공공도서관 휴관 형태

직원 대상의 공공도서관 휴관 형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기타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한적 조치가 41.6%, 부

〈표 3〉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유행성 질병이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0	0.0	1	0.9	2	1.9	41	39.4	60	57.6	4.53	0.59
유행성 질병에 공동 대응하는 국가 중심의 도서관 대책 마련의 필요성	0	0.0	1	0.9	4	3.8	35	33.6	64	61.5	4.55	0.62
IFLA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국가도서관의 상황 및 대처에 관한 설문 인식	60	57.6	27	25.9	9	8.6	6	5.7	2	1.9	1.68	0.988

〈표 4〉 공공도서관의 휴관/개관 여부

구분	N	%
개관했음	14	13.4
4주 미만 휴관	1	0.9
4주 이상-8주 미만 휴관	6	5.7
8주 이상-12주 미만 휴관	53	50.9
12주 이상 휴관	30	28.8
계	104	100.0

분적 사무실 폐쇄가 12.5%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사무실이 폐쇄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직원 대상의 제한적 조치란, 재택근무, 최소 인원만 관외대출 근무, 보안·재무·청소 등의 직원만 근무, 기본 팀만 출근 등의 형태를 말한다(〈표 5〉 참조).

4.3.3 이용자 대상의 공공도서관 휴관 형태

이용자 대상의 공공도서관 휴관 형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자료실 휴관이 5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한적 조치가 20.4%, 부분적 자료실 휴관이 19.6%, 기타가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용자 대상의 제한적 조치란, 1m 간격을 두고 좌석 배치, 제한인원만 열람실 이용, 자료 비대면 수령 등의 형태를 의미한다(〈표 6〉 참조).

4.3.4 직원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2점 척도로 평균이 인터넷 비용 지원금 제공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택근무 설비 제공이 1.85, 직원들 약 2m 물리적 거리를 두고 근무가 1.73,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노력이 1.70, 특별 유연 근무 시간제 마련이 1.66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표 7〉 참조).

4.3.5 이용자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2점 척도로 평균이 이용자들을 위해 특별 개관 시간 마련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m 거리를 두고 좌석 배치하거나 열람실 입장 인원 제한이 1.34, 다음으로 이용자에게 디지털화하여 자료 제공이 1.33, 이용자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책을 예약하여 대출 가능성이 1.09,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서비스 제한이 1.04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이용자 특정 시간 및 장소

〈표 5〉 직원 대상의 공공도서관 휴관 형태(복수응답)

구분	N	%
전체 사무실 폐쇄	0	0.0
부분적 사무실 폐쇄	12	12.5
제한적 조치	40	41.6
기타	44	45.8
계	96	100.0

〈표 6〉 이용자 대상의 공공도서관 휴관 형태(복수응답)

구분	N	%
전체 자료실 휴관	71	55.9
부분적 자료실 휴관	25	19.6
제한적 조치	26	20.4
기타	5	3.9
계	127	100.0

〈표 7〉 직원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M	Std
	N	%	N	%		
모든 해외 출장 취소	93	89.4	11	10.5	1.10	0.309
모든 국내 출장 취소	51	49.0	53	50.9	1.51	0.502
필수적이지 않은 출장에 대해서만 취소	64	61.5	40	38.4	1.38	0.489
재택근무 실시	42	40.3	62	59.6	1.59	0.493
재택근무 설비 제공	15	14.4	89	85.5	1.85	0.353
직원 자가 격리	45	43.2	59	56.7	1.56	0.498
직원에게 보호 장비 제공	84	80.7	20	19.2	1.19	0.396
특별 유연 근무 시간제 마련	35	33.6	69	66.3	1.66	0.475
순환 및 교대 근무 실시	36	34.6	68	65.3	1.65	0.478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노력	31	29.8	73	70.1	1.70	0.46
근무지에서 직원들의 체온 체크	90	86.5	14	13.4	1.13	0.343
인터넷 비용 지원금 제공	8	7.6	96	92.3	1.92	0.268
직원들 약2m 물리적 거리를 두고 근무	28	26.9	76	73.0	1.73	0.446
추가 위생조치 실시	89	85.5	15	14.4	1.14	0.353

에서 책을 예약하여 대출 가능한 예로서는 드라이브 스루 혹은 워크 스루(Drive-through or Walk-through) 방식의 대출을 들 수 있다(〈표 8〉 참조).

4.3.6 디지털/온라인서비스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디지털/온라인서비스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

응조치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2점 척도로 평균이 정부T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서비스 제공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분 휴관 중에 전자신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이 1.81,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추가 안내데스크 제공과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제한이 각각 1.76, SNS에 추천도서 제공

〈표 8〉 이용자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M	Std
	N	%	N	%		
이용자들에게 휴관 소식 알림	104	100.0	0	0.0	1.00	0.000
모든 행사 취소	103	99.03	1	0.9	1.01	0.098
이용자들을 위해 청소 및 소독 개선	104	100.0	0	0.0	1.00	0.000
이용자들을 위해 특별 개관 시간 마련	40	38.4	64	61.5	1.61	0.489
이용자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책을 예약하여 대출 가능	94	90.3	10	9.6	1.09	0.296
이용자에게 디지털화하여 자료 제공	69	66.3	35	33.6	1.33	0.475
1m 거리를 두고 좌석 배치하거나 열람실 입장 인원 제한	68	65.3	36	34.6	1.34	0.478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서비스 제한	99	95.1	5	4.8	1.04	0.215

이 1.64, 새 온라인 활동 개발이 1.54의 순으로 집계되었다(〈표 9〉 참조).

든 네트워크 이벤트 취소가 1.55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10〉 참조).

#### 4.3.7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에 관하여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2점 척도로 평균이 일정대로 네트워크 행사 진행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행사 개발이 1.79, 온라인 협력 진행이 1.65,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진행이 1.64,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침 및 프레젠테이션 제공이 1.61, 모

#### 4.3.8 대응조치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

대응조치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응조치가 현장 오프라인 이용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4.6%인 반면에 대응조치가 온라인 이용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81.7%로 높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9〉 디지털/온라인서비스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M	Std
	N	%	N	%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개선	66	63.4	38	36.5	1.36	0.484
새 온라인 활동 개발	47	45.1	57	54.8	1.54	0.500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추가 안내데스크 제공	25	24.0	79	75.9	1.76	0.429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제한	25	24.0	79	75.9	1.76	0.429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웹 내 특별 도움말(안내) 페이지 생성	59	56.7	45	43.2	1.43	0.498
기존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홍보	85	81.7	19	18.2	1.18	0.388
이용자를 위해 모든 디지털 자료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64	61.5	40	38.4	1.38	0.489
부분 휴관 중에 전자신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	19	18.2	85	81.7	1.81	0.388
SNS에 추천도서 제공	37	35.5	67	64.4	1.64	0.481
정부IT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서비스 제공	16	15.3	88	84.6	1.84	0.363

〈표 10〉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조치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M	Std
	N	%	N	%		
온라인 네트워크 행사 개발	21	20.1	83	79.8	1.79	0.403
일정대로 네트워크 행사 진행	12	11.5	92	88.4	1.88	0.321
모든 네트워크 이벤트 취소	46	44.2	58	55.7	1.55	0.499
온라인 협력 진행	36	34.6	68	65.3	1.65	0.478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진행	37	35.5	67	64.4	1.64	0.481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침 및 프레젠테이션 제공	40	38.4	64	61.5	1.61	0.489

〈표 11〉 대응조치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N	%	N	%	N	%
현장(오프라인) 이용자 수 증가	36	34.6	68	65.3	104	100.0
온라인 이용자 수 증가	85	81.7	19	18.2	104	100.0

4.3.9 코로나19가 공공도서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공공도서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기관의 자금유동성 문제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2.1%이며, 코로나19가 도서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축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2.5%로 집계되었다(〈표 12〉 참조).

4.3.10 직원 측면에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공도서관 대체활동 및 서비스개발 여부

직원 측면에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공도서관 대체활동 및 서비스개발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 지침 개발에 응답한 경우가 51.9%, 전문적인 개발 기회에 응

답한 경우가 38.4%, 웹 콘퍼런스/온라인 미팅에 응답한 경우가 33.6%로 확인되었다(〈표 13〉 참조).

4.3.11 이용자 측면에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공도서관 대체활동 및 서비스개발 여부

이용자 측면에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공도서관 대체활동 및 서비스개발 여부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모바일 서비스가 63.4%, 온라인 문화 프로그램이 39.4%,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캠페인이 37.5%, 교육적 트레이닝 플랫폼 제공이 33.6%, 온라인 연속간행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가 30.7%로 집계되었다.

또한 디지털 열람실 제공이 26.9%,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강의가 24.0%, 코로나

〈표 12〉 코로나19가 공공도서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N	%	N	%	N	%
기관의 자금유동성 문제	75	72.1	29	27.8	104	100.0
정부지원 축소	65	62.5	39	37.5	104	100.0

〈표 13〉 직원 측면에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공도서관 대체활동 및 서비스개발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N	%	N	%	N	%
전문적인 개발 기회	40	38.4	64	61.5	104	100.0
재택근무 지침	54	51.9	50	48.0	104	100.0
웹 콘퍼런스/온라인 미팅	35	33.6	69	66.3	104	100.0

19에 대한 온라인 강의가 20.1%, 가상 견학이 14.4%, 사서와의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연결)이 13.4%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자 수의 상당한 감소와 이용자들의 도서관 방문능력 및 의지 감소가 3.81, 예산 삭감이 3.74 순으로 집계되었다(〈표 15〉 참조).

#### 4.4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주요 우려사항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5점 척도로 평균이 불확실성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기서 불확실성은 바이러스의 지속여부나 코로나19 종식 후 사회변화 등을 뜻한다.

다음으로 평균이 4.0대로서 이용공간과 도서관 대출자료의 과학적 소득방법이 4.31, 직원들의 건강이 4.29, 경제침체상황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과제가 4.14, 도서관 활성화 전략이 4.02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평균이 3.0대로서 재택근무의 효율성, 업무관계의 악화,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 관련 우려가 3.97, 직원의 고용이 3.84, 이용

### 5. 논의

지난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Hubei Province) 우한(武漢, Wuhan)에서 처음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만의 문제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도서관계에서도 초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의 대책을 세우고 비대면 및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도서관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는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였다.

〈표 14〉 이용자 측면에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공도서관 대체활동 및 서비스개발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N	%	N	%	N	%
교육적 트레이닝 플랫폼 제공	35	33.6	69	66.3	104	100.0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캠페인	39	37.5	65	62.5	104	100.0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강의	25	24.0	79	75.9	104	100.0
코로나19에 대한 온라인 강의	21	20.1	83	79.8	104	100.0
온라인 연속간행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	32	30.7	72	69.2	104	100.0
디지털 열람실 제공	28	26.9	76	73.0	104	100.0
가상 견학	15	14.4	89	85.5	104	100.0
사서와의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연결)	14	13.4	90	86.5	104	100.0
온라인 문화 프로그램	41	39.4	63	60.5	104	100.0
모바일 서비스	66	63.4	38	36.5	104	100.0

〈표 15〉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주요 우려사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직원들의 건강	3	2.8	2	1.9	10	9.6	35	33.6	54	51.9	4.29	0.934
직원의 고용	5	4.8	4	3.8	23	22.1	42	40.3	30	28.8	3.84	1.041
예산 삭감	2	1.9	10	9.6	30	28.8	33	31.7	29	27.8	3.74	1.033
도서관 활성화 전략	1	0.9	2	1.9	20	19.2	51	49.3	30	28.8	4.02	0.806
경제침체상황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과제	1	0.9	1	0.9	15	14.4	52	50.0	35	33.6	4.14	0.769
이용자 수의 상당한 감소와 이용자들의 도서관 방문능력 및 의지 감소	3	2.8	9	8.6	22	21.1	40	38.4	30	28.8	3.81	1.041
재택근무의 효율성, 업무관계의 악화,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 관련 우려	2	1.9	4	3.8	23	22.1	41	39.4	34	32.6	3.97	0.939
이용공간과 도서관 대출 자료의 과학적 소독방법	1	0.9	1	0.9	13	12.5	38	36.5	51	49.0	4.31	0.804
불확실성(예: 바이러스의 지속 여부)	1	0.9	1	0.9	8	7.6	32	30.7	62	59.6	4.47	0.76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공공도서관 사서인식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기된 핵심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연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앞으로 도서관서비스 측면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유행성을 띤 문제로 접근하고 있을까? 아니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도서관서비스의 방법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질병이 도서관서비스의 방법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7.6%에 이르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유행적이기 보다는 앞으로 도서관서비스의 방법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질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심의 도서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무려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각 도서관마다 서비스의 범위가 상이하게 제공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신종 전염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일원화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응조치가 공공도서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이용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결과, 대응조치가 공공도서관 오프라인 이용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5.3%인 반면에 온라인 이용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81.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향후 코로나19와는 다른 신종 전염병이 발병되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도서관은 유행성 질병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해 두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신종 전염병에 다시 부딪치게 될 시에 도서관은 마련된 대응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 수와 이용자들의 도서관 방문능력 및 의지 감소를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직원 측면에서는 건강과 재택근무 및 고용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주요 우려사항으로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수의 상당한 감소 및 도서관 활성화 전략이 주요 우려사항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확산 및 장기화될 시에 직원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지침 및 설비의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행성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능력 및 의지를 증가시키고,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시사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디

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확산 및 가속화될 경우,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관계단절 및 정서적 외로움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유행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대상의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증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사서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신종 감염병이 확산 및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공공도서관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유행성 질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심의 도서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도서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서는 소신 있는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경향신문, 2020.7.15). 이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일원화된 지침을 배포 및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종 감염병이 확산 및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책 보급, 온라인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

공도서관 비대면 및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 분야에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으로 38억 7,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에 25억 6,500만 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점자자료 등의 제작에 13억 1,4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2020.7.23).

따라서 앞으로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서관은 이를 통해 비대면 및 온라인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실질적으로 취해져야 할 직원에 대한 대응조치로는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재택근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 비용 지원금 및 재택근무 설비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관 근무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직원들 약 2m 물리적 거리를 두고 근무 및 특별 유연 근무 시간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이용자에 대한 대응조치로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소독 및 방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특별 개관 시간 마련 및 1m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거나 열람실 입장 인원 제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특정 시

간 및 장소에서 책을 예약하여 대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관련해서는 온라인 문화프로그램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온라인 강의, 사서와의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연결)을 서비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및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보불평등 계층의 디지털 문화 격차(digital culture divide)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신종 전염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보불평등 계층이 소외 단절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공익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여러 도서관 관중 가운데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사서인식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관중의 도서관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먼저 도서관 실무차원에서 유행성 질병에 대응하는 공공도서관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공도서관이 신종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제 없는 바이러스와의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2020). 코로나19 시대의 공공도서관.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30008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300085&code=990304)
- 권순만 (2020). 코로나 바이러스의 교훈. 한국정책학회 소식지 The KAPS, (봄호), 4-7.
- 김남순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3호), 1-12.
- 김성원 (2020). 감염병 상황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247-267.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247>
- 김완중 (2015). 유행성 질병이 공공도서관의 대출책수에 미치는 영향: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4), 273-287.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4.273>
- 오마이뉴스 (2020). 공공도서관 승차대출 등 코로나19 극복 38억 지원.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70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70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채수미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미래 질병 대응을 위한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4호), 1-7.
- 한응규 (2020). 국가혁신시스템은 코로나19 시대에 올바른 해법을 제공하는가? FUTURE HORIZON, 68-77.
- Ahmed, W., Bath, P. A., Sbaffi, L., & Demartini, G. (2019). Novel insights into views towards H1N1 during the 2009 pandemic: A thematic analysis of Twitter data.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36, 60-72. <https://doi.org/10.1111/hir.12247>
- Featherstone, R. M., Lyon, B. J., & Ruffin, A. B. (2008). Library roles in disaster response: An oral history project by the NLM.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6(4), 343-350. <https://doi.org/10.3163/1536-5050.96.4.009>
- Featherstone, R. M., Boldt, R. G., Torabi, N., & Konrad, S. (2012). Provision of pandemic disease information by health sciences librarians: A multisite comparative case series.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00(2), 104-112. <https://doi.org/10.3163/1536-5050.100.2.008>
- Guarner, J. (2020). Three emerging coronaviruses in two decades: The story of SARS, MERS, and Now COVID-19. *Am J Clin Pathol*, 153, 420-421. <https://doi.org/10.1093/ajcp/aqaa029>
- Malizia, M., Hamilton, R., Littrell, D., Vargas, K., & Olney, C. (2012). Connecting public libraries

with community emergency responders. *Public Libraries*, 57(3), 32-36.

Wang, T., & Lund, B. D. (2020). Announcement information provided by united states' public libraries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Public Library Quarterly*, 1-12.

<https://doi.org/10.1080/01616846.2020.1764325>

Wilder-Smith, A., & Freedman, D. O. (2020). Isolation, quarantine, social distancing and community containment: Pivotal role for old-style public health measures in the novel coronavirus (2019-nCoV) outbreak. *Journal of Travel Medicine*, 1-4.

<https://doi.org/10.1093/jtm/taaa02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ae, Sumi (2020). COVID-19 and future challenges. *Health Welfare ISSUE & FOCUS*, (374), 1-7.

Han Woongkyu (2020). Does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provide the right solution in the corona19 era? *Future Horizon*, 68-77.

Kim, Namsoon (2020).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COVID-19. *Health Welfare ISSUE & FOCUS*, (373), 1-12.

Kim, Sungwon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library service in the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247-267.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247>

Kim, Wan-Jong (2015).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epidemic disease on the number of books checked out of the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4), 273-287.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4.273>

Kwon Soonman (2020). Lessons of coronavirus. *The KAPS*, (Spring Issue), 4-7.

Kyunghyang (2020). Public library of the corona19 era.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30008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300085&code=990304)

Oh My News (2020). Public library 3.8 billion support to overcome corona19.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70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70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